



자주목련 / *Magnolia denudata* var. *purpurascens* (Maxim.) Rehder & E.H.Wilson

---

| 구분   | 설명  |
|------|---|
| 생물분류 | 식물  |
| 속국명  | 목련속   |
| 과국명  | 목련과   |
| 과명   | Magnoliaceae 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목련과 낙엽 활엽 교목으로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서 자라고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중부 이남에서 자라고 있다.</p> <p>형태 : 낙엽활엽교목.</p> <p>크기 : 수고 15m에 이른다.</p> <p>꽃색 : 백색, 자주색</p> <p>개화기 : 5월, 4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거꿀달걀모양 또는 거꾸로 세운 달걀 같은 긴 타원 모양이다. 끝이 둔두이지만 뾰족해지며, 밑부분은 좁고 뾰족해진다. 겉면에는 털이 없다. 뒷면은 광택이 있는 연한 초록색이고, 잎맥에 털이 약간 있다.</p> <p>꽃은 4~5월에 가지 끝에서 큰 꽃으로 핀다. 꽃잎의 겉은 홍자색이고 안쪽은 하얀색이다. 다른 목련류처럼 꽃잎이 6장이지만 바깥 꽃받침 3장이 꽃잎처럼 생겨서 9장으로 보인다. 꽃잎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며 거꿀달걀모양이다.</p> <p>열매는 골돌과이고 홍갈색이며, 원기둥 모양이다.</p> <p>어린 가지와 겨울눈에 털이 있다.</p> <p>추위에 강하지만 겨울에는 서북풍을 막아 주는 큰 건물이나 나무가 있는 곳이 좋다. 음지와 양지 모두에서 잘 자란다. 물이 잘 빠지면서도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땅이 좋으며, 기름지고 비교적 진흙이 적게 섞인 흙이 적합하다. 염분에 강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도 잘 자란다. 접붙이기를 하여 번식시킨다.</p> |